

속죄일과 십자가, 그리고 조사심판: 히브리어 ‘카파르’의 신학적 함의¹⁾

하계상(삼육대학교 신학과 교수, 구약학)

I. 들어가는 말

속죄일은 표상학적으로 십자가 사건의 그림자요 모형으로 그치는가 아니면 십자가 사건 이후의 사건들도 표상하는가? 속죄일이 십자가 사건 이후의 사건들도 표상한다면, 재림 전 심판이라고도 하는 조사심판도 그 중에 포함되는가? 이 질문들²⁾에 답변할 수 있는 근거들은 성서신학, 특히 구약신학의 관점에서 무엇인가? 필자는 속죄와 관련된 핵심적인 용어들 중 하나인 히브리어 동사 ‘카파르’의 용례들을 레위기에서 속죄와 직접 연관된 성경 구절들, 특히 제사장이 행하는 매일의 봉사(날마다의 봉사) 그리고 레위기 16장에 언급된 대제사장이 속죄일에 행하는 매년의 봉사(해마다의 봉사)를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한다.

II. 히브리어 ‘카파르’

1. 히브리어 동사 ‘카파르’의 의미

히브리어 동사 ‘카파르’는 구약성경에서 101번 나타나는데, 주로 능동태 강제형(*Piel*, ‘킵페르’)으로 사용되었다(92번).³⁾ ‘카파르’의 어원과 의미에 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있지만,

- 1) 이 논문은 하계상, “대속죄일과 십자가 그리고 조사심판: 히브리어 ‘카파르’의 신학적 함의” in 『1844, 1888, 그리고 조사심판의 신학적 조명』, 하계상 편집(서울: 한국연합회 목회부, 2016), 168-190을 부분적으로 수정 보완한 것이다.
- 2) 이 질문들에 대해 성서적으로 답변해야 할 필요성은, 최근 출판된 이상구 박사의 두 권의 책, 즉 『화잇이 “다시 한 예언”』(속초: 이상구박사뉴스타트센터, 2016)과 『십자가와 조사심판』(속초: 이상구박사뉴스타트센터, 2016)으로 인한 것이다. 필자의 논문은 주로 『십자가와 조사심판』에서 제기한 주장에 대한 반박이지만, 『화잇이 “다시 한 예언”』에서 제기한 주장에 대한 반박도 적지 않게 포함되어 있다. 『화잇이 “다시 한 예언”』, 172-190에서 제기한 ‘시험’, 특히 ‘아브라함의 시험’에 관해서 제기한 논쟁은 필자의 논문(하계상, “신정론적 관점에서 본 아케다[the Aqedah]: 최종 형태의 본문으로서의 창세기 22장 1-19절 새로 읽기”, 「구약논단」 제54집(2014.12.31.): 90-126을 참조하면 해결될 것이다. 이상구 박사의 주장들을 일일이 다 짚어가면서 반박할 수 없는데, 그 이유는 그의 주장들이 논리 정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신학적 전문성이 완전히 결여되어 있으며, 너무나도 많은 주제들을 다루었고, 심지어 많은 경우에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그의 주장들을 일일이 짚어가면서 다 반박한다면, 그가 저술한 두 권의 책보다도 더 많은 분량의 책을 필자가 저술해야 할지도 모른다.
- 3) KyeSang Ha, “Cultic Allusions in the Suffering Servant Poem (Isaiah 52:13-53:12)” (Ph.D. dissertation, Andrews University, Seventh-day Adventist Theological Seminary, 2009), 216. 강제 수동태형(*Pual*)으로 7번(출 29:33; 민 35:33; 잠 16:6; 사 6:7; 22:14; 27:9; 28:18), 재귀형(*Hithpael*)으로 1번(삼상 3:14), 그리고 수동적 의미가 있는 특이형(*Nithpael*)으로 1번(신 21:8) 사용되었다. 필자의 이 학위논문에는 ‘카파르’에 대한 연구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더라면 짧은 시일 안에, 그것도 학기말의 이 바쁜 시간에 이 논문을 완성하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카파르’는 아랍어 ‘카파라’(kafara, “덮다, 숨기다”)보다는 아카드어 ‘쿱푸루’(kuppuru, “지우다, 정결하게 하다/깨끗하게 하다”)와 관련되어 있다고 간주되고 있다.⁴⁾ 그리고 아카드어 ‘쿱푸루’는 물리적인 행위 자체를 나타내는 반면, 히브리어 ‘카파르’는 그 동사가 나타내는 행위, 즉 ‘카파르’ 행위의 목표/의미를 나타내고 있다고 간주되고 있다.⁵⁾

2. 매일의 봉사에서의 ‘카파르’

‘카파르’는 1년 내내 성소에서의 매일의 봉사, 즉 날마다의 봉사에서 제의적 기능을 위해 사용되었는데,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제물을 드리는 자들의 속죄 가능한 도덕적인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용서(‘살라흐’)를 받기 위해 필수적인, 제사장이 행하는 정결/속죄 의식에, 둘째는 제물을 드리는 자들의 제의적인 육체적 불결로부터의 정결(‘타헤르’)을 위해 필수적인, 제사장이 행하는 정결 의식에, 셋째는 제물을 드리는 자들의 속죄 가능한 도덕적인 죄 또는 제의적인 육체적 불결에 대한, 제사장이 행하는 정결 의식에 사용되었다.⁶⁾ 여기서 제사장이 행하는 의식의 결과가 분명히 언급된 경우들을 짚어보면 다음의 두 경우이다.

첫째는 속죄제(sin offering; 보다 더 정확하게는 ‘정결제’[purification offering 또는 purgation offering])에 의한 정결/속죄는 레위기에서 4:20, 26, 31, 35와 5:10, 13에 언급되어 있으며,⁷⁾ 속건제(guilt offering; 보다 더 정확하게는 ‘배상제’[reparation offering])에 의한 정결/속죄는 레위기에서 5:16, 18과 6:7, 그리고 19:22에 언급되어 있다.⁸⁾ 이 관련 성경 구절들에 대한 히브리어 본문을 일관성 있게 번역한다면 그 형식은 간략히 다음과 같다:

“제사장이 … 그들을/그를 위하여 … 속죄한즉 그들이/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여기서 “사함을 얻으리라”는 히브리어 동사 ‘살라흐’의 수동태 기본형인 ‘니슬라흐’인데, 그것은 소위 ‘신적 수동태’(Divine passive)로서 용서를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나타내는데, 그 사실은 오직 하나님만 히브리어 동사 ‘살라흐’의 주어가 될 수 있고 그 파생어들도 오직 하나님만 관련하여 사용되어 있음을 통해 명백하게 입증되어 있다.⁹⁾

둘째는 산모의 제의적인 육체적 불결에 대한 정결은 레위기 12:7-8, 특이한 피부병에 대한 정결은 레위기 14:18-21, 29, 31, 육체로부터의 비정상적인 유출이 있는 남자나 여자에 대한 정결은 레위기 15:15, 30, 그리고 곰팡이 종류로 인해 부정하게 된 집의 정결은 레위기 14:53에 언급되어 있다.¹⁰⁾ 이 관련 성경 구절들도 히브리어 본문을 일관성 있게 번역한다면 그 형식은 간략히 다음과 같다:

4) 윗글, 217. 보다 더 자세한 논의를 위해서는 윗글, 217 n. 782를 참조하라.

5) Roy E. Gane, *Cult and Character: Purification Offerings, Day of Atonement, and Theodicy* (Winona Lake, IN: Eisenbrauns, 2005), 192, 372.

6) Ha, 윗글, 219.

7) 윗글. 민 15:25, 28 [2번]; 참조, 레 5:6; 6:30; 9:7 [2번]; 10:17; 민 6:11; 겔 45:20.

8) 윗글. 참조, 민 5:8.

9) 윗글, 224-227.

10) 윗글, 219 n. 789.

“제사장이 …을/를 위하여 속죄한즉 …가/이 정결하리라.”

여기서 “정결하리라”는 히브리어 동사 ‘타헤르’(“깨끗하다/정결하다”[be clean/pure])의 능동태 기본형이어서, 비록 수동태의 의미를 부가할 필요는 없지만, “정결하게 되리라”고 번역할 수 있다.

그러므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매일의 봉사에서 제사장이 행하는 ‘카파르’ 의식을 통해 제물을 드리는 자들에게 도덕적인 죄에 대해서는 용서가 베풀어지고, 제의적인 육체적 불결로부터는 정결케 되었다.

3. 매년의 봉사에서의 ‘카파르’

레위기 16장은 “속죄일”(레 23:28, 욘 킵푸림[Yom Kippurim]¹¹⁾에 대제사장이 성소에서 행하는 매년의 봉사를 상세하게 다루고 있는데, 히브리어 동사 ‘카파르’가 구약성경 전체를 통하여 가장 빈도가 높고 가장 밀도 있게 16번이나 사용되어 있으며,¹²⁾ 그 용례는 크게 5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도덕적인 죄와 제의적인 육체적 불결로부터의 성소(the Sanctuary)의 정결과 관련하여 ‘카파르’가 사용되어 있는데, 레위기 16장의 흐름을 따라 언급한다면 16절은 지성소(the inner sanctum)와 성소(the outer sanctum)의 정결, 17절은 지성소의 정결, 18절은 번제단의 정결, 20절은 성소의 세 부분, 즉 지성소, 성소, 그리고 번제단의 정결, 27절은 수송아지의 정결제와 여호와를 위한 염소의 정결제의 피로 이루어지는 지성소의 정결, 33절은 성소의 세 부분의 정결, 그리고 34절은 성소(the Sanctuary)의 정결에 대한 것으로 ‘카파르’가 언급되어 있다.¹³⁾

둘째는 제물을 드리는 자들을 위해 도덕적인 죄와 제의적인 육체적 불결로부터의 정결과 관련하여 ‘카파르’가 사용되어 있는데, 6절과 11절은 제사장 공동체를 위한 정결, 17절은 제사장 공동체와 평민 공동체를 위한 정결, 24절은 제사장 공동체와 평민 공동체를 위한 부가적인 번제에 의한 정결, 33절 상단은 제사장 공동체를 위한 정결, 33절 하단은 평민 공동체를 위한 정결에 대해 ‘카파르’가 언급되어 있다.¹⁴⁾

셋째는 번제단의 재봉헌을 위해 도덕적인 죄와 제의적인 육체적 불결로부터의 정결에 대해 ‘카파르’가 사용되어 있는데, 18절의 ‘카파르’ 행위로 인한 결과를 19절에서는 히브리어 동사 ‘타헤르’의 능동태 강제형인 “정결케 하다”(cleanse/make clean)를 사용한 정결과 히브리어 동사 ‘카다쉬’의 능동태 강제형인 “신성하게 하다/봉헌하다”(consecrate)를 사용한 봉헌을 하나로 묶어 “정결케 하다”로 번역하고 있다. 모세 오경 중에서 절의 수가 가장 많은 89절을 할애하여 민수기 7장이 번제단의 봉헌식을 다루고 있을 정도로 성소에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필수적이고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는 성소 기구가 번제단인데, 1년에 걸친 매일의 봉사가 끝난

11) 그러나 유대인들은 “속죄일”을 일반적으로 “욘 킵푸르”(Yom Kippur)라고 칭한다. 속죄일에 대한 자세한 연구를 위해서는 Gane, 윗글, 217-381과 Roy E. Gane, *Leviticus, Numbers, The NIV Application Commentary* (Grand Rapids, MI: Zondervan, 2004), 270-297, 그리고 Ha, 윗글, 205-207, 211-212, 219-221을 참조하라.

12) 레위기 16:6, 10, 11, 16, 17 [2번], 18, 20, 24, 27, 30, 32, 33 [3번], 34. 히브리어 동사 ‘카파르’ 및 그 행위의 대상과 관련된 의미심장한 구문론적 구조에 관한 논의는 윗글, 220 n. 791 및 거기에 언급된 참고문헌들을 보라.

13) Ha, 윗글, 220, n. 792. 출애굽기 30:10에는 ‘카파르’가 두 번 나오는데, 정결제로서 향단으로 대표되는 성소(the outer sanctum)의 정결에 대한 것이다.

14) 윗글, 220 n. 793. 레위기 23:28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대한 정결에 대한 것이다.

후 속죄일에 있는 매해의 봉사에서 또 다시 새로운 1년을 위해 레위기 16:18-19에서 번제단을 정결케 함으로써 다시 봉헌하고 있는 것이다.¹⁵⁾

넷째는 아사셀 염소의 정결 의식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모든 도덕적인 죄를 성소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으로부터 제거하는 것(removal/elimination/eradication, expulsion)과 관련하여 ‘카파르’를 사용하고 있는데, 레위기 16:10은 희생 제물로 하는 ‘카파르’ 행위가 모두 종료된 후 희생 제물로 하지 않는 아사셀 염소의 제의(20절)와 관련된 ‘카파르’를 언급하고 있다. 즉 아사셀 염소의 제의는 이스라엘의 모든 도덕적인 죄에 대한 마지막 단계의 ‘카파르’ 행위로서, 모든 죄를 성소에서 아사셀 염소에게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으로부터 광야의 무인지경으로 추방하는 제의인 것이다.¹⁶⁾

다섯째는 속죄일의 ‘카파르’ 의식들로 인한 최종적인 결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도덕적인 정결(‘타헤르’)과 관련하여 ‘카파르’를 사용하고 있다. 레위기 16장 30절에서는 ‘카파르’를 사용한 다음 ‘타헤르’의 능동태 강제형인 “정결케 하다”(cleanse/make clean)를 사용하여 ‘카파르’ 행위의 목적을 나타내고 또 ‘타헤르’의 능동태 기본형인 “정결하다”(be clean/pure)를 사용하여 ‘카파르’ 행위의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¹⁷⁾

이와 같이 매일의 봉사에서 정결제(속죄제)와 배상제(속건제)에 의한 제사장의 카파르 행위를 통해 이미 제물을 드린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용서가 베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성소 전체(지성소, 성소, 그리고 번제단) 및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결을 위한 매해의 봉사인 속죄일의 제의를 다루고 있는 레위기 16장에서 히브리어 ‘카파르’가 사용되어 있고, 심지어 그것도 구약성경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게다가 속죄일의 제의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지는 것은 ‘용서’가 아니라 모든 죄로부터의 ‘정결’이다. 왜냐하면 ‘용서’는 이미 매일의 제사를 통하여 희생 제물을 드린 죄인들에게 베풀어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사셀 염소의 제의와 관련해서도 ‘카파르’가 사용된 것을 고려할 때 히브리어 동사 ‘카파르’는 속죄 과정 전체를 망라하는 히브리어 용어임이 분명하다.

4. 아사셀 염소 및 그에 대해 사용된 ‘카파르’의 특이성

‘카파르’와 관련하여 앞에서 언급한 아사셀 염소 및 그와 관련하여 레위기 16장에서 사용한 ‘카파르’에 대해 보다 더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결코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첫째, 두 염소에 대한 8절의 제비뽑기에서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한 것이고 다른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한 것이므로 여호와와 아사셀이 뚜렷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여호와가 인격체인 이상 여호와와 뚜렷한 대조를 이루고 있는 아사셀도 당연히 인격체로 보아야 할 것이다.¹⁸⁾ 게다가 ‘아사셀’에 붙어 있는 히브리어 전치사 ‘르’(8, 10[2번], 20절)가 “...의 소유인, ...에 속한”의 의미도 있으므로 ‘아사셀에게 속한 염소’라고 볼 수도 있는데, 10절 하단과 26절에서 “보내다”(send away)는 의미로 사용된 히브리어 동사 ‘살라흐’의 능동태 강제형은 그 뒤에 어떤 대상이나 장소가 수반되므로 결국 ‘아사셀에게 속한 염소’를

15) 번제단의 중요성은 에스겔 43:13-27에서도 드러나 있다.

16) Ha, 윗글, 221 n. 195와 거기에 언급된 참고문헌들을 보라.

17) 윗글, 221 n. 796과 거기에 언급된 참고문헌들을 보라.

18) 윗글, 221 n. 795. 레위기 16:10에 있는 아사셀::여호와::아사셀의 교차대구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여호와 앞에”라는 표현은 “아사셀”의 히브리어 바로 앞에 붙어 있는 히브리어 전치사 ‘르’를 “...에게로, ...을 향해”(to, towards)라고 보는 경우, “아사셀에게로”와 확연한 대조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아사셀’에게로 보낸다고 이해해도 전혀 무리가 없기 때문이다.¹⁹⁾

둘째, 5절에서 여호와를 위한 염소와 아사셀을 위한 염소, 두 염소 모두를 “정결제”로 언급하고 있지만, 9절의 여호와를 위한 염소와는 달리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 죽이지 않았으므로 하나님께 “정결죄”로 드리지도 않았다(10절).²⁰⁾ 왜냐하면 9절의 여호와를 위한 염소에 대해서 사용된 “드린다”는, 히브리어 동사 ‘카라브’의 능동태 사역형인 “가까이 오게 하다”(bring near)와 여기서 “정결제”를 목적으로 취하고 있는 히브리어 동사 ‘아사’의 능동태 기본형인 “하다, 만들다”의 두 개를 하나로 결합하여 번역한 것이다. 그러므로 9절의 여호와를 위한 염소에 대해서 사용된 “드린다”는 하나님께 희생 제물인 그것으로 “정결제”를 드린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20절의 아사셀을 위한 염소에 대해 사용된 “드린다”는 ‘카라브’의 능동태 사역형인 “가까이 오게 하다”만 사용되어 있으므로 그 의미가 근본적으로 달라 아사셀 염소로 하는 제의를 위한 준비 과정에 지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염소가 모두 “정결제”인 것처럼 5절에 언급된 이유는, 그 둘 중 어느 것이 “정결제”로 제비가 뽑힐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제비뽑기로 여호와를 위한 염소와 아사셀을 위한 염소가 결정된 후에는 여호와를 위한 염소는 “정결제”로 언급되지만(9, 15절),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 결코 “정결제”로 언급되지 않는다(10, 20-22, 26절).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 “정결제”가 아니라는 사실은, 특히 10절과 20절의 모순처럼 보이는 대조가 이해될 때 분명해진다.

10절의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대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카파르’)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는 말씀과 20절의 “그 지성소와 회막과 단을 위하여 속죄하기(‘카파르’)를 마친 후에 산 염소를 드리되”라는 말씀은 언뜻 보면 서로 모순되는 것일 수 있다. 심지어 10절을 보다 정확하게 번역하여 “그러나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가 그 위에 올라간²¹⁾ 염소는 그 위에 속죄하고 아사셀에게로 광야로 보내기 위하여 산채로 여호와 앞에 놓여있게 하라”고 옮겨도 마찬가지로 느껴질 것이다. 그러나 ‘카파르’가 속죄의 전 과정을 망라하는 히브리어 동사라는 사실을 알면 이해가 되고도 남는다.

아사셀을 위한 염소도 ‘카파르’ 의식의 과정에서 하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10절처럼 언급되어 있으며,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지성소와 성소, 그리고 번제단과 관련된 정결 의식이 14절부터 19절까지에 걸쳐 이미 끝났으므로 20절처럼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10절은 희생 제물로 하는 ‘카파르’ 행위가 모두 종료된 19절 이후에 희생 제물로 하지 않는 아사셀 염소의 제의인 20절과 관련된 ‘카파르’를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아사셀 염소의 제의는 이스라엘의 모든 도덕적인 죄에 대한 마지막 단계의 ‘카파르’ 행위로서, 모든 죄를 성소에서 아사셀 염소에게로, 그리고 아사셀 염소를 광야의 무인지경으로 추방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으로부터 모든 죄를 제거하는 제의인 것이다(20-22절). 26절에서 “[아사셀]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라고 명시한 것은,

19) Gane, *Cult and Character*, 288-289. 10절에는 대상(아사셀)과 장소(광야)가 다 언급되어 있는 반면, 26절에는 장소 없이 대상(아사셀)만 언급되어 있고, 21절에는 대상 없이 장소(광야)만 언급되어 있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동일한 히브리어 표현인 “라아자젤”을 10절에서는 “아사셀을 위하여”라고 번역하고 있는 반면, 26절에서는 “아사셀에게로”라고 번역하고 있어 일관성이 번역에 결여되어 있다.

20) 레위기 23장(8, 16, 18, 25, 27, 36절), 그리고 민수기 28장(19, 27절)과 29장(8, 13, 36절)에서는 히브리어 동사 ‘카라브’의 능동태 사역형인 “가까이 오게 하다”(bring near)만으로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그곳들과 다르게 레위기 16장에는 위에서 지정한 바와 같이 9절의 여호와를 위한 염소에 대해서 사용된 “드린다”와 20절의 아사셀을 위한 염소에 대해 사용된 “드린다”가 분명히 대조적으로 표현되어 있음을 필히 주목해야 할 것이다.

21) 두 염소에 대한 제비를 뽑아 그 제비를 두 염소의 머리 위에 올렸던 것이 분명하다.

이스라엘 진으로부터 모든 죄가 제거되었기 때문에 아사셀 염소를 광야로 보낸 자가 그 염소와의 접촉으로 인해 아사셀에게 완전히 옮겨졌던 죄에 오염되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결 의식을 행하도록 한 것이다.²²⁾

‘카파르’가 속죄의 전 과정을 망라하는 히브리어 동사라는 사실은, 아사셀 염소로 하는 제의가 완료된 후 대제사장이 하는 속죄일의 제의가 23절부터 25절까지 언급되어 있는 그 중심인 24절에 또 다시 히브리어 동사 ‘카파르’가 대제사장 자신과 백성들을 위한 ‘카파르’ 행위에 사용되어 있는 것에서 확연히 입증된다.

셋째, 산채로 광야(wilderness)/무인지경(cut-off land)에서 놓았던(‘살라흐’) 아사셀 염소는 두 마리의 새에 관한 예식(레 14:1-9)에서 산채로 들(field)에 놓았던(‘살라흐’) 새와 완전히 다르게 대조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비록 동일한 히브리어 동사 ‘살라흐’가 사용되었지만, 그들이 놓였던 장소가, 새의 경우에는 자유(부활을 상징)를 의미할 수 있지만, 염소의 경우에는 야생 염소가 아니기 때문에 광야, 그것도 무인지경은 자유가 아니라 곧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새 두 마리의 경우에는 제비를 뽑지 않지만(레 14:4-6), 염소 두 마리의 경우에는 제비를 뽑는 것이 부각되어 있으며(레 16:7-10), 성경에서 제비를 뽑는 사례들을 보면 동일한 정체(identity)에게 두 개의 제비를 동시에 부여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이다.

넷째, ‘아사셀’을 “염소”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에즈’와 구약 히브리어에는 사용된 적이 없지만 차용한 “가버리다/떠나다(go away), 데리고 가다(lead away), 제거하다(remove)”를 뜻하는 ‘아잘’의 합성어²³⁾이거나 ‘아잘’의 중복으로 만들어진 합성어²⁴⁾로 간주하고 “희생양”(scapegoat)으로 번역한 것도 전혀 신빙성이 없다. 레위기 16장의 아사셀 염소의 제의가 의미하는 것을 고려해 볼 때도 그렇고, 아사셀의 어원과 의미에 관한 논의도 학자들 사이에 아직 의견 일치가 없기 때문이다.²⁵⁾

다섯째, 레위기에서의 다른 희생제물의 경우에는 한 손으로 안수했지만(제물과 그 제물을 드리는 자를 동일시하는 행위), 아사셀 염소의 경우에는 대제사장이 그 머리 위에 두 손으로 안수하여 이스라엘의 모든 죄(‘아본’[iniquity, “죄악”], ‘페샤’[rebellion, “반역”], ‘헛타트’[sin, “죄”])를 이양했다(레 16:21). 한 손으로 안수하는 것과는 분명히 다른 의미(정도 및 관계에 있어서)인 것이 분명하다. 이 경우에 있어서 제사장은 민수기 27:23에서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여호수아를 자신의 후계자로 세울 때 두 손으로 안수하여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권위와 모든 성령의 은사를 완전히 여호수아에게 이양하는 것과는 완전히 대조적이다. 대제사장은 아사셀 염소의 머리에 두 손으로 안수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들을 고백함(히브리어 ‘아다’, “쏘다”[shoot]의 재귀형, “confess”)으로써 그 모든 죄들을 아사셀 염소의 머리 위에 두며(히브리어 ‘나탄’, “주다, 두다”[give, set]), 아사셀 염소는 그 모든 죄를 짊어지고 미리 정한 사람은 아사셀 염소를 데리고 무인지경에 이르면 광야에서 놓는다.²⁶⁾ 아사셀 염소가 죄를 짊어지는 것은 일반적으로 죄를 짊어지는 경우(대속적이든지 아니든지)와는 히브리어 표현상 확연히 다르다. 아사셀 염소의 경우에는 “자기 위에”([up]on him/itself)가 첨가되어 있어 두 손으로 머리에 안수함을 받고 모든 죄가 그에게 이양되는 것과 더불어 민수기

22) 죄의 오염으로부터의 방지 차원에서 27-28절의 정결 의식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

23) Walter C. Kaiser, “The Book of Leviticus,” in *The New Interpreter's Bible*, vol. 1 (Nashville, TN: Abingdon, 1994), 1112; 참조, BDB, 736.

24) BDB, 736.

25) Gane, *Leviticus, Numbers*, 289-290.

26) Gane, *Cult and Character*, 245-246.

27:23과는 확연한 대조를 이루며 매우 부정적이다.²⁷⁾

그러므로 이와 같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점들을 고려해볼 때, 아사셀 염소는 ‘scapegoat’ (희생양)이 아니며,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할 수 없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을 떠맡고 종말에는 파멸에 이르게 될 죄의 창시자요 선동자/유혹자인 사탄을 상징한다고 보아야 마땅할 것이다.²⁸⁾

III. 속죄일과 십자가, 그리고 조사심판

히브리어 동사 ‘카파르’는 성소 표상학의 모형과 그림자에서 속죄의 전 과정을 포함하기 때문에 그 원형과 실체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영원한 속죄, 조사심판, 그리고 죄의 창시자요 선동자/유혹자인 사탄의 존재 소멸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죄는 하늘에서 시작되었으므로 (참조, 사 14; 겔 28; 계 12) 죄의 문제는 지구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 우주적인 문제이며, ‘카파르’의 포괄적인 의미를 고려한다면 속죄를 우주적 관점에서 보아야 하므로 ‘우주적 속죄’라는 말도 결코 지나친 표현이 아닐 것이다. 그러므로 속죄일의 원형과 실체를 십자가로 결코 한정시킬 수 없으며, 조사심판, 나아가서는 최후의 심판(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천년기 이후에 있을 악인들, 악한 천사들, 그리고 사탄에 대한 심판)과도 반드시 연관시켜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아사셀 염소의 원형과 실체인 사탄이 최종적으로 파멸되어야 비로소 죄와 악, 그 전체와 더불어 그 근원 자체가 사라져 온 우주가 완전히 정결하게 되기 때문이다. 히브리어 동사 ‘카파르’가 속죄일과 관련하여 나타내고 있는 신학적인 함의가 바로 그 사실을 가리키고 있다.

속죄일은 “성회”(레 23:27; 민 29:7)요 “큰 안식일”(레 16:31; 23:32)²⁹⁾이므로,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명령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라.”는 명령이 엄중하게 주어져 있다. 레위기 23:27, 29, 32이 이루고 있는 교차대구(A: 27절,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라” :: B: 29절, 불순종에 따른 절멸의 경고 :: A’: 32절,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라”), 레위기 16:29, 31이 이루고 있는 교차대구(A: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라” : B: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 B’: “큰 안식일” : A’: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라”), 그리고 레위기 23:32이 이루고 있는 교차대구(A: “너희의 쉼 안식일” :: B: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라” :: A’: “너희는 안식을 지키라”)는 이 명령들이 거듭해서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과 함께 이 명령들이 매우 엄중하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다. 민수기 29:7에는 “너희는 마음을 괴롭게 하라”는 명령과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는 명령이 언급되어 있는데, 레위기 16:29, 31 및 23:27, 29, 32의 명령과 히브리어 본문이 근본적으로 동일하다.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라”/“너희는 마음을 괴롭게 하라”는 명령은 히브리어 동사 ‘아나’가 히브리어 명사 ‘네페쉬’(“자신[self], 사람[person], 목숨[life]”)를 목적어로 취하고 있는 구문이다.³⁰⁾ 따라서 그 히브리어 동사는 자음이 같은 네 종류의 히브리어 동사 중에서

27) 참조, *Leviticus, Numbers*, 290.

28) 레위기 17:7에 수염소(‘사이르’: “male goat”)에 대한 우상숭배 금지조항이 있는데, 그것과 아사셀의 관련성을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영어성경 NASB와 ESV는 거기에 있는 ‘사이르’의 복수(pl.)를 “염소 귀신들”(goat demons)로 번역하고 있다.

29) 히브리어 ‘샤바트 샤바톤’은 안식일(출 31:15; 35:2; 레 23:3), 안식년(레 25:4), 그리고 속죄일(레 16:31; 23:32)과 관련되어 사용되어 있는데, 레위기 16:31에는 “큰 안식일”로, 23:32에는 “쉴 안식일”로 일관성이 없게 번역되어 있다.

절대로 “응답하다”나 “노래하다”나 “...로 바쁘다”에 해당하는 것일 수가 없고, “겸비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동사 ‘아나’의 능동태 강제형으로 “겸비하게 하다”(humble)으로 해석해야 마땅하다.³¹⁾ 그렇게 해석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바로 그 히브리어 표현과 병행하여 언급되는 것이 자기부정 및 자아부인 속에서 이루어지는 “금식”과 “기도” (시 35:13; 사 58:3, 5; 참조, 스 8:21; 단 10:3, 12),³²⁾ 그리고 심지어는 성의 절제를 암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참조, 민 30:13 [H 14]).³³⁾

엘렌 G. 화잇(Ellen G. White)은 속죄일과 관련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해야 할 태도를 “속죄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각 사람은 그의 영혼을 괴롭게 하여야 했다. 모든 일을 중지하고 온 이스라엘 회중은 기도와 금식과 마음의 깊은 반성으로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게 그 날을 보냈다.”고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다.³⁴⁾ 그도 그럴 것이 “해마다 한 번씩 그리스도와 사탄 사이의 대쟁투의 종국의 사건들 곧 우주에서 죄와 죄인들을 최종적으로 제거하는 사건에 그들의 마음이 이끌려갔”³⁵⁾기 때문이다.

IV. 나가는 말

필자가 앞에서 연구한 히브리어 동사 ‘카파르’의 신학적 함의가, 속죄일의 원형과 실체에 관해 화잇 여사가 기록한 글들과 얼마나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지 다음의 증언들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그리스도의 피가 회개한 죄인을 율법의 정죄에서 풀어줄 것이지만 죄를 완전히 없이 하지는 못할 것이었다. 그 죄는 최종적 속죄 때까지 성소의 기록에 남아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모형에 있어서도 속죄제물의 피는 회개한 사람에게서 죄를 제거하였으나 그것은 속죄일까지 성소에 남아 있었다.

최후의 보상의 큰 날에 ... 그리스도의 속죄의 공로로 말미암아 회개한 모든 사람의 죄가 하늘 책에서 도말된다. 이와 같이 하여 성소는 죄의 기록에서 해방 혹은 정결케 되는 것이다. 모형에서 이 속죄의 대사업 곧 죄를 도말하는 일은 속죄일의 봉사 곧 속죄제물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성소를 더럽혀 왔었던 죄를 제거함으로써 성취된 성소의 정결로 예표되었다.

최후의 속죄 때에 진심으로 회개한 자의 죄가 하늘의 기록에서 도말되고 다시 기억되거나 마음에 떠오르지 않게 되어 있는 것과 같이 그 상징에 있어서도 죄는 회중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어 광야로 옮겨지게 되었던 것이다.

사탄은 죄의 창시자이었으며 ... 선동자이었으므로 공의는 사탄이 최종적 벌을 받을 것을

30) 레위기 16:29, 31, 23:27, 32, 그리고 민수기 29:7에는 ‘아나’의 능동태 강제형이 사용되어 있다. 레위기 23:29에는 ‘아나’의 수동태 강제형이 사용되어 있으나, 그 주어로 ‘네페쉬’가 언급되어 있다. 민수기 30:14, 시편 35:13, 그리고 이사야 58:3, 5도 참조하라.

31) 히브리어 동사 ‘아나’는 4개의 다른 의미를 지닌 다의어(多義語, polysemy)가 아니고, 발음은 같으나 뜻이 서로 다른 4개의 동음이의어(同音異議語, homonym)이다. 그리고 “응답하다”의 ‘아나’는 수동태 기본형이 사용되어 있지만, “노래하다”의 ‘아나’나 “...로 바쁘다”의 ‘아나’는 수동태로 사용되지 않았다.

32) 에스라 8:21과 다니엘 10:12에는 ‘네페쉬’가 언급될 필요 없는 ‘아나’의 재귀형이 사용되었다.

33) 참조, Gane, *Cult and Character*, 312-315.

34) 엘렌 G. 화잇, 『빛을 전한 사람들』, 상권(서울: 시조사, 1999), 312.

35) 엿글, 314.

요구한다. 사람의 구속과 우주를 죄에서 정결하게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사업은 하늘 성소에서 죄를 제거하고 마지막 형벌을 받을 사탄에게 이 모든 죄를 돌리므로 끝나게 될 것이다. 그와 같이 모형적 봉사에 있어서도 연중 봉사는 성소의 정결과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뽑은 염소의 머리 위에 죄를 고백함으로 끝났다.”³⁶⁾

“마치 아사셀 염소가 사람이 살지 않는 지역으로 쫓겨났던 것처럼 사탄도 쓸쓸한 지구, 곧 거민이 없고 황량한 광야로 추방당할 것이다.”³⁷⁾

“의인들의 죄는 사탄에게 옮겨진다. … 정결케 하는 그 불로써 악인들은 뿌리와 가지, 곧 뿌리가 되는 사탄과 가지가 되는 그를 따르는 자들이 마침내 완전히 멸망당한다. 율법의 형벌이 완전히 집행되고 공의의 요구가 충족되면, 하늘과 땅은 여호와의 의를 바라보고 찬송하게 된다.”³⁸⁾

화잇 여사의 대쟁투적 역사관이 가장 두드러진 저서인 『각 시대의 대쟁투』의 마지막 문단은 특별한 의미가 있으므로 우리는 필히 주목해야 할 것이다.

“**대쟁투는 끝났다. 죄와 죄인들은 더 이상 없다. 온 우주는 깨끗하다.** 오직 조화와 기쁨의 맥박만이 광대한 피조세계를 통하여 고동(鼓動)친다. 만물을 창조하셨던 그분으로부터 생명과 빛과 환희가 끝없는 공간의 전 영역들로 퍼져나간다. 가장 작은 원자(原子)로부터 가장 큰 세계에 이르기까지, 만물은 생물계와 무생물계를 막론하고 그늘지지 않은 아름다움과 완전한 기쁨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고 선포한다.**”³⁹⁾

화잇 여사의 바로 이 글에서 구속은 전우주적이며, 그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고, 그 최종적인 결과는 온 우주의 ‘정결’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매년의 봉사인 속죄일 제의의 최종적인 결과가 ‘정결’인 것처럼,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진 우주와 관련하여 ‘정결’이 언급되어 있다는 사실도 참으로 흥미롭고 놀랍고 의미심장하다.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대쟁투적 역사관에서 볼 때 속죄는 개인적 국면과 우주적 국면이 있으며, 개인적 국면은 개개인의 생애가 끝날 때까지 계속되는 과정이고, 우주적 국면은 죄의 우주적 처리, 즉 우주적 속죄가 마무리될 때까지 계속되는 과정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즉 그분의 대속적인 희생과 영광스러운 부활은 그 두 국면, 즉 개인적 국면과 우주적 국면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며 확고부동한 기초이다.

하나님의 정부의 통치 원리인 “의와 공의”(righteousness and justice, 시 89:14; 97:2), 즉 하나님의 성품이 십자가로 확연히 드러났으며(참조, 시 85:10-11), 개인적 속죄 및 우주적 속죄의 조사심판과 최후의 심판을 통하여 완전히 구현되고 실현될 것이다(참조, 계 15:3-4; 16:5-7; 18:20; 19:2, 11).⁴⁰⁾

36) 원글; 밑줄은 필자가 첨가한 것임.

37) 엘렌 G. 화잇, 『빛을 전한 사람들』, 하권(서울: 시조사, 1999), 305; 밑줄은 필자가 첨가한 것임.

38) 원글, 318.

39) 원글, 영문, 678; 굵은 글씨는 필자가 첨가한 것임.

40) 참조, 원글, 영문, 92: “하나님의 처소인 하늘 성전에서 그분의 보좌는 의와 공의로 확립되어 있다. 지성소에는 전 인류를 평가하는 의의 위대한 원칙인 그분의 율법이 있다. 율법의 두 석판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는 법궤는 속죄소로 덮여 있는데, 그리스도께서는 그 앞에서 죄인을 위해 당신의 피로써

변호하신다. 이와 같이 공의와 자비의 결합이 인류 구속의 계획에는 나타나 있다. 이 결합은 오직 무한한 지혜만이 고안할 수 있었고, 무한한 능력만이 성취할 수 있었다. 그것은 온 하늘을 경탄과 흠모로 충만하게 하는 결합이다. 속죄소를 경건하게 내려다보고 있는 지상성소의 그룹들은, 하늘 천사들이 속죄 사업에 대해 갖는 관심을 나타낸다. 이것은 천사들이 주의 깊게 살피기 갈망하는 자비의 신비이다. 그 신비는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죄인을 의롭게 하셔서 타락한 인류와 그분의 교제를 재개하시는 동시에 그분께서 의로우실 수 있다는 것, 그리스도께서 셀 수도 없는 많은 무리들을 파멸의 심연으로부터 끌어올리시려고 몸을 굽히시고, 그들을 결코 타락한 적이 없는 천사들과 연합시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영원히 거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오점이 없는 그분 자신의 의의 옷을 입히실 수 있었다는 것이다.”